Scenes from Goethe's Faust, WoO 3

- □□

정보

Robert Schumann: Scenes

from Goethe’s Faust, WoO 3
작곡가: Robert Schumann (1810–1856)
작품명: Scenes from Goethe’s Faust, WoO 3 (Szenen aus Goethes Faust)
장르: 독창 ·혼성 합창 ·소년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형 성악 작품
작곡 시기: 1844–1853년
부분 초연: 1848년 6월 25일, 드레스덴, 제 3부
전곡 초연: 1862년 1월, 쾰른, Ferdinand Hiller 지휘
IMSLP: https://imslp.org/wiki/Scenes_from_Goethe%27s_Faust_(Schumann,_Robert)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cenes_from_Goethe%27s_Faust

Robert Schumann의 Scenes from Goethe’s Faust, WoO 3은 괴테의 Faust 제 1부와 제 2부에서 여러
장면을 골라 서곡과 세 부로 묶은 대형 성악 ·관현악 작품이다. 파우스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하는
오페라가 아니라, 그레트헨의 사랑과 죄책감, 파우스트의 죽음, 마지막 변용과 구원을 선택해 음악으로 연결한다. 슈만은 이 작품을 1844년부터 1853년까지 여러 시기에 나누어 썼고, 제 3부의 신비로운 합창과 제 1·2부의 극적인 장면이 한 공연 안에서 만난다.

개요
제 3부의 초안은 1844년에 시작되었고 , 제 1·2부는 1849–1850년에 주로 완성되었다 . 관현악 서곡은 가장 늦은 1853년에 더해졌다. 서로 다른 시기의 음악을 한 작품으로 묶으면서, 그레트헨의 구체적인 비극과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원을 한 방향으로 이어 가는 설계가 만들어졌다 .

제 3부는 1848년 6월 25일 드레스덴에서 먼저 연주되었고 , 이듬해 괴테 탄생 100주년을 맞아 드레스덴 · 라이프치히 ·바이마르에서 같은 날 나뉘어 연주되었다 . 전곡은 슈만이 세상을 떠난 뒤 1862년 1월 쾰른에서 Ferdinand Hiller의 지휘로 처음 올랐다. 전곡 초연 날짜는 자료에 따라 1월 13일과 14일로 하루 차이가 나지만, 쾰른과 Hiller라는 핵심 정보는 일치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Julius Friedländer가 1858년에 초판을 출간했으며, 1859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 판본은 Berlin Staatsbibliothek가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디지털 복제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출판사는 Breitkopf & Härtel였고 표지에는 금박 장식이 있었다.

연주 시간

전곡 연주 시간은 약 105–125분이다. Breitkopf & Härtel판은 105분, 110분, 122분 녹음이 있다. 이 중 Herreweghe가 가장 빠른 템포를 택했고 Wit와 Abbado가 그 뒤를 따른다.

편성

- 목관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 합창 : SATB 혼성 합창
- 금관 :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 타악 : 팀파니, 심벌즈 등

이 곡은 또한 독주 바이올린, 독주 첼로, 그리고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되었다. 편곡은 1853년에 출판되었다. 이 편곡은 원곡의 템포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제 1부 : 밤의 장면

제 1부는 곡의 *Faust* 제 1부에 해당한다.

- 서곡 없이 바로 시작한다.
- `Gretchen vor dem Bild der Mater dolorosa`가 이 장면의 핵심 모티프이다.
- 이 장면은 약 18분 정도 연주된다.

짧은 관현악 전환과 성악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 이 부분은 오페라의 장면처럼 인물의 말을 직접 앞세운다. 하지만 슈만은 괴테의 사건 전체를 재현하지 않고, 그레트헨의 사랑과 회한, 종교적 공포를 세 개의 초상으로 압축했다.

제 2부: 파우스트
제 2부는 괴테 제 2부에서 파우스트가 다시 생의 세계로 깨어나는 장면, 결핍을 의인화한 네 노파와 마주하는 장면, 눈이 멀어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선택한다.

Ariel과 정령들의 해돋이는 죽음에 가까이 갔던 파우스트가 자연의 생명력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자정 장면에서는 Mangel, Schuld, Sorge, Not가 파우스트의 한계와 불안을 형상화한다 .
Fausts Tod 에서는 렘무레스와 메피스토펠레스 , 파우스트의 마지막 말이 극적 긴장으로 모인다.

이 부분은 세 부 가운데 가장 오페라적인 충돌이 많다. 독창자들이 긴 대사를 이어 가고, 합창과 관현악이
장면의 공간과 압력을 바꾸면서 파우스트의 죽음에 도달한다. Daniel Harding의 녹음에 대한 평론은 제 2부의 극적 강도를 특히 높게 평가했고, Antoni Wit의 녹음은 여러 장면을 주제와 리듬의 반복으로 묶는다.

제 3부: 파우스트의 변용

제 3부는 괴테 제 2부 마지막 장면을 거의 온전히 음악화한다 . 숲과 산의 영들, Pater Seraphicus와 Pater Profundus, 회개하는 여인들, Mater Gloriosa, Doctor Marianus, 천사들의 합창이 파우스트의 변용을 둘러싼다. 마지막 Chorus mysticus 는 괴테의 “모든 지나가는 것은 비유일 뿐 ”이라는 결말을 신비로운
합창으로 마무리한다 .

이 부의 합창은 제 1·2부의 인물 대화와 소리가 다르다. 개별 인물의 감정이 천천히 천상의 여러 합창으로 넓어지고, 관현악은 긴 선율과 투명한 화음으로 그 이동을 받친다. 작품 전체의 종결에는 짧은 원래 판과 1847 년에 손질한 긴 판이 있어, 녹음마다 결말의 길이와 무게가 다르다.

장르와 문체
도서관과 출판사는 이 작품을 오라토리오 또는 독창 ·합창 ·관현악 작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 1·2부에는
배역과 대화, 구체적인 장면 전환이 많아 오페라의 작법도 뚜렷하고, 제 3부는 성찰적인 오라토리오와 신비극에 가깝다. 한 장르의 이름으로 고정하기보다 괴테의 장면을 선별한 대형 극음악으로 소개하면 세 부의 차이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체 차이는 오랜 작곡 기간과도 연결된다. 1844년의 제 3부는 슈만의 오라토리오 Das Paradies und die Peri와 가까운 합창적 흐름을 보이고, 1849–50년의 제 1·2부는 드레스덴 시기의 오페라적 감각과 긴 선율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동기와 서곡, 파우스트의 마지막 변용이 작품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끈다.

종결판과 공연 관행
슈만은 제 3부의 마지막 합창을 두 가지 상태로 남겼다. 짧은 원래 종결은 비교적 빠르게 끝나고, 긴 개정판은 천사와 신비 합창이 이어지는 시간을 늘린다. Philippe Herreweghe는 긴 개정판을, Benjamin Britten·Claudio Abbado·Antoni Wit은 짧은 판을 사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전곡의 길이뿐 아니라 마지막 장면이 남기는 여운도 달라진다.

작품의 대규모 편성과 긴 시간 때문에 전곡 공연은 자주 열리지 않는다. 대신 제 3부나 Fausts Tod, Gretchen vor dem Bild der Mater dolorosa 같은 일부 장면이 발췌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발췌 공연은 원작의 장면을 접하는 입구가 되지만, 세 부 사이의 문체 대비와 마지막 구원의 방향은 전곡에서 더 분명하다.

주요 레코딩

Philippe Herreweghe / La Chapelle Royale·Collegium Vocale·Orchestre des Champs-Élysées (Harmonia Mundi, 1999):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의 투명한 색채와 긴
종결판을 함께 들려준다. 성당 장면과 파우스트의 죽음, 마지막 Chorus mysticus의 관현악 공간이 또렷하다.
Nikolaus Harnoncourt /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Netherlands Radio Choir (RCO Live, 2009): Christian Gerhaher와 Christiane Iven을 비롯한 독창진의 인물성이 강하고, 대규모 음향과 친밀한 성악을 균형 있게 묶는다.
Antoni Wit / Warsaw Philharmonic (Naxos, 2011): 짧은 종결판을 사용하며, 제 2부의
극적 통일성과 제 3부의 온화한 변용을 선명한 합창과 관현악으로 연결한다.
Daniel Harding /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BR Klassik, 2014): Part II의 긴장과 Faust·Gretchen의 장면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도 , 마지막 합창의 투명한
음향을 유지한다.

주요 자료

Brahms-Institut Lübeck 디지털 아카이브: 작곡 시기, 부분 초연과 전곡 초연, 자필과 전승 정보.

Deutsche Digitale Bibliothek, Schumann 자필: Berlin Staatsbibliothek의 두 권 자필 총보와
작성 기간.

Repertoire Explorer, Bradford Robinson 서문: 1844–1853년 작곡 과정, 1848·1849년 부분
초연, 1862년 전곡 초연과 세 부의 장면.

Breitkopf & Härtel, Szenen aus Goethes Faust: 약 105분의 시간, 독창 ·합창 ·관현악 편성, 종결판 정보.
DNB 독일국립도서관 카탈로그: WoO 3의 작품 분류와 서지 정보.

Gramophone, Philippe Herreweghe: 시대악기 녹음과 긴 종결판에 대한 평가.

BBC Music, Nikolaus Harnoncourt: RCO Live 녹음의 독창진과 장면별 해석.

MusicWeb International, Antoni Wit: 세 부의 극적 성격과 짧은 종결판에 대한 평론.

MusicWeb International, Daniel Harding: 제 2부의 긴장과 2014년 녹음의 합창 ·관현악 평가.